

2019년 11월 1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서기관 정재환(2515)
국내방역2반 반장 이기중(2551), 사무관 정재균(2558)/ 제공 : 11월 19일(총2매)

연천군은 SOP에 따라 5개월 후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임을 확인 후 랜더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음

(JTBC 11.19일 <연천 매몰지, '내년 5월 원상복구' 조건으로
빌렸는데....' >보도에 대한 해명)

- 연천군은 SOP에 따라 5개월 후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임을 확인 후 랜더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음
- 2019.11.19. JTBC <연천 매몰지, '내년 5월 원상복구' 조건으로 빌렸는데....' 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연천군은 내년 5월까지 47천여마리 사체를 모두 퇴비가 되도록 한 뒤 땅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나, 이때까지 시민단체는 퇴비가 될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,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동물 사체처리 매뉴얼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명내용

-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동물사체처리 매뉴얼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
○ 연천군에서는 SOP상 사체처리방법의 하나인 호기성호열미생물 처리방식*으로 매몰지를 조성하였으며,

* 호기성호열미생물과 왕겨 등의 혼합물과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물을 이용하여 발효 방식으로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방법

- SOP에 따라 5개월 후 정밀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잔존물을 랜더링 등 처리하고, 매몰지를 원상회복할 계획이었음